



목장 나눔지 & 개인묵상지

(목) 환영 - 얼음 깨기(Ice-breaking)

- 여름 피서나 휴가 중 가장 재미있고 기억에 남는 것은 무엇입니까?
- 올 여름 꼭 가보고 싶거나 여행하고 싶은 곳은 어디입니까? 왜?

(장) 장마비와 같은 한양과 경배

복음성가중심

다 와서 찬양해 (찬미)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찬미)
나의 안에 거하라 (찬미)
은혜 (찬미)

찬송가 중심

예수 내 맘에 들어와 (찬289)
목마른 내 영혼 (찬309)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찬286)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찬445)

(교) 교재를 통한 삶의 나눔 - 말씀 / 기도

나눔 질문

설교제목

“내 몸에 새기는 예수의 흔적”

갈라디아서 6장 17절

요약

사도 바울이 자기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고 하면서 자랑한다. 그때 당시의 흔적(낙인)이라는 용어는 그리 자랑스러워할 단어가 아니라 오히려 지옥의 상징이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당한 위험, 고난, 감옥 생활, 매 맞음 등으로 몸에 난 자국이 바로 자기 몸에 지닌 예수의 흔적임을 자랑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스도를 위해 싸우다 얻게 된 흔적들은 영광스럽다. 당당함과 자랑스러움의 상징이다. 왜냐하면 그만큼 열정적으로 온몸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했고, 온몸으로 아픔과 고통을 당해가며 하나님 편에서 일했다는 증거이기 때문이다. 흔적만큼 강력한 증거가 없다. 흔적만큼 설득력 있는 증거가 없다. 바울시대가 아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 예수 믿으면서 육체에 새겨진 예수의 흔적은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어떤 분은 실제로 지금도 예수 때문에 육체적인 고통을 당하기도 한다. 그런 분들에게는 예수의 흔적은 분명 눈에 보이는 상처를 의미한다. 그러나 대부분은 눈에 보이는 상처는 구제적인 흔적을 신자의 내면에 있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생각할 수 있다. 예수를 닮은 형상이라는 것이다. 사도 바울은 육에 갇힌 자국, 매를 맞은 자국, 고문당한 자국이 남아 있었지만 우리에게 그런 자국이 없다. 우리에게 눈에는 보이는 흔적이 아니라, 예수 믿어서 변화된 사도 바울의 정체성, 삶의 목표, 삶의 가치관, 라이프스타일처럼 우리도 예수 믿어서 변화된 나의 정체성, 삶의 목표, 가치관이 우리 몸에 새겨진 예수의 흔적이 된다. 그 흔적은 물리적인 흔적은 아니다. 그러나 가장 분명한 흔적이고 가장 잘 보이는 흔적이다. 예수 믿고 사람이 변하고 생각이 변하고 라이프스타일이 바뀌었다라는 것은 이젠 예수 때문에 생긴 물리적인 상처보다 더 가치 있는 흔적이다. 더 분명하고 자랑스러운 흔적이며 남들이 보고 감동할 수 있는 흔적이다. 이런 예수의 흔적들을 가진 성도가 되라. 그렇게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가라. 그렇게 고백하고 살아가는 것이 진정 내 몸에 새기는 예수의 흔적이다. 내 몸에 새겨진 예수의 흔적으로 당당하고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사람들을 감격케 하는 신실한 성도가 되라.

나눔

나눔1. 지난주일 선포된 말씀(마태복음 14:22-23 “홀로 있음의 기회”)을 듣고 당신은 무엇을 깨닫게 되었고, 그 말씀이 어떻게 삶에 적용되었습니까?

나눔2. 당신의 몸에 난 상처가 있습니까? 당신은 그 상처를 말하고 싶습니까? 아니면 숨기고 싶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나눔3. 왜 갈라디아 성도들은 거짓교사들의 가르침을 듣고 흔들렸다고 생각하십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음을 그들은 왜 확신하지 못했다고 생각되십니까?

나눔4. 당신은 열정적으로 온몸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온몸으로 아픔과 고통을 당해가며 하나님 편에서 일했다는 증거를 말한다면 무엇이냐 말씀하시겠습니까?

나눔5.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당신에게 변화된 일들은 무엇입니까? 그 중에서 당신이 생각하기에 놀랍게 변화된 것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나눔6. 매일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새기며 살기 위해, 그리고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사람들을 감격시키는 신실한 성도로 살아가기 위해, 이 한 주간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실천할 사항은 무엇이라고 여기십니까?
이 일을 위해 당신은 어떤 일들에 도전하시겠습니까?

(회) 회원들을 기도와 돌봄으로 섬김 - 증보기도

- 지난 한 주간의 삶에서 감사할 일과 기도할 일(부담, 근심, 고통스러운 일들)을 나누고 기도하세요.
- 나눔을 하면서 나온 기도제목들을 다시금 상기하면서 함께 기도하세요(서로 손을 얹고).
- VIP를 위해 **방식, 빈의자, 이름표등을 이용하여 함께 중보** 기도하세요.
- 가족과 개인의 기도제목을 위해 기도하세요.
- 환우&자녀를 위한 기도(변경된 사항이 있으면 교회사무실로 알려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환 우	• (회복/자택) •강일승집사(회복/자택) •공봉금집사(회복/자택) •김경섭집사(회복/자택) •김경숙성도(회복/자택) •김금심권사(회복/자택) •김기억집사(회복/자택) •김동식성도(회복/자택) •김명자집사(회복/자택) •김병환집사(회복/자택) •김은자권사(회복/자택) •김재홍집사(회복/자택) •문성곤님(치유/자택) •문황집사(치유/자택) •박근우집사(회복/자택) •서영지님(치유/요양원) •서재석집사(회복/자택) •성경성도(회복/자택) •심상철집사(회복/자택) •양희현집사(치유/자택) •오상기성도(회복/자택) •이인기집사(회복/자택) •이정순집사(회복/자택) •이하연아기(치유/자택) •장석수성도(치유/병원) •조성덕권사(회복/자택) •최순수집사(회복/요양원) •최복남집사(치유/자택) •홍명자권사(회복/자택)		
군복무		단기선교	양요한(레바논)
유학/해외	강하연(미국) 김성우(미국) 정유진(폴란드) 최영진(일본)		

(모) 모든 가족이 사역에 참여 - 사역 계획과 나눔

※ 교회, 부서행사 및 교육 훈련 안내

- ◆ 교회 홈페이지- <http://www.schsm.net> ※모바일 홈페이지- <http://m.schsm.net>
- ◆ 성령강림절 여섯 번째 주일 주간- 성령께서 내게 오심을 최고의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성령으로 우리의 구원자 예수를 알고 예수 전하는 삶이 되세요.
- ◆ 1일 부흥성회- 24일(주일) 오전 10시, 오후2시 / 주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대를 이어가는 교회와 가정 / 강사: 허천회목사(캐나다 말씀의교회 담임, 토론토대학 낙스 신학대학교 교수)
- ◆ 24일 주일 낮예배는 온세대연합예배 및 부흥성회로 오전 10시에 모입니다.
- ◆ 부흥회 점심식사- 목장별로 교회 인근 식당에서 식사합니다.
- ◆ 2022 상반기 감사 공모전- 1~6월 상반기 동안 감사한 일을 간증 및 수필/ 그림/ 공예 중 택하여 10일(주일)까지 제출 ☞문의 및 제출: 사무실, 문자 or 카톡(010-6306-8742 최신웅목사)
- ◆ 독후감 공모- 여름 무더위를 이기는 책읽기 추천도서 『먹다, 듣다, 건다』를 읽고 독후감을 31일까지 사무실로 제출(A4용지 1장 내외).
- ◆ 신혼가정부 모임- 결혼한 새내기부터 결혼 10년차의 성도들의 새롭게 신설된 모임. 격주로 모임을 갖으며, 다음 모임은 7월31일 주일 오전2부 예배 후입니다.
- ◆ 금주 성경필사- 발립보서 1~4장(주보 성경읽기표를 참고)
- ◆ 십자가 컨퍼런스- 18일~20일, 소망수양관(경기도 광주)
- ◆ 교회학교 여름수련회- 어린이교회(7.30-31/교회), 청소년교회(7.28-30/순창), 젊은이교회(8.19-20/장흥)
- ◆ 목장나눔지- 목장나눔지는 목장모임시 목장원들과 금주간 선포된 말씀 나눔과 기도를 하는데 활용하시고, 개인적인 말씀묵상을 위한 목자지로도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 ◆ 목장보고- 각 목장의 목자께서는 한 주간 목원들이 읽은 성경 쪽수를 취합해, 목장 기도제목과 함께 교회사무실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 금 / 찬송

(임) 임재하신 성령 안에서 마무리 or 주기도문

각기 다른 지체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마무리합니다.